

# 양조장 관광·문화 공간으로 개발 상습 침수피해 해소 '탄력'

## 무주군,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사업'에 농업회사법인 덕유 선정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사업'에 2023년 '농업회사법인(유)덕유'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공모에 농업회사법인(유)덕유에 최종 선정돼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사업비로 2년간 1억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유)덕유는 30년의 머무와인 전통주 전문 기업으로 지속적인 체험공간을 개발, 2세대 가족 경영의 강점 등 현대적 가치를 아울러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관광 가치를 강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회사법인(유) 덕유는 생산시설

건축을 비롯해 술고지와인카페, 와인 축육시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주머무와인동굴, 태권도원 등 무주군의 관광지 연계 등을 통해 더욱더 확장해 갈 전망이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사업'은 전통주 등 주류제조업체로서 견학·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전국 9개 업체에 대해 현지실사 및 발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5개소가 선정됐으며, 이중 무주군 농업회사법인(유) 덕유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유)덕유는 환경개선으로 길 안내 간판 설치

및 포토존과 전시시설 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와인바디스크림, 와인잔 만들기, 뽕소 또는 상그리아 만들기, 시음 체험 등이 가능하고 이를 홍보할 홍보 영상물과 브로슈어 제작 등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군 농업지원과 이은창 과장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산머투 주산지인 무주군이 머무와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에 선두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좋은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찾아가는 양조장을 통한 전통주 인지도 향상 및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다각도의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게 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이상저온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만전'

### 장수군, 과수농가 피해 점검

장수군은 최근 갑작스런 이상저온에 따라 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이상고온으로 과수 개화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갑작스런 이상저온으로 기온이 영하 3.1℃까지 낮아지면서 과수농가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257 농가, 162ha의 과수농가가 피해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군은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피해접수 및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다.

군은 지난 3월 과수 개화 시기 급변하는 기상재해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서리피해예방제를 408농가 616ha에 지원했으며, 꽃가루 250ha, 석송사 250ha, 수정벌 250ha 등도 지원했다.

그러나 개화기 초기 이상저온으로 꽃눈 저온피해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군은 서리피해 예방제가 조속히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총 피해 규모 파악한 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은 "장수군 피해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각종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원인 과수 인공수분 기계 살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고원 연장리 꽃잔디 동산서 직거래장터 열린다

진안군이 4월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진안고원 연장리 꽃잔디 동산에서 '진안군 농가 행복장터'를 연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꽃잔디 동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진안고원의 맛과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꽃잔디 동산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진안군 농특산유통과가 진안고원물 입점 농가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직거래장터 희망업체를 모집했다.

농가 행복장터를 위해 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3층 소교육장에서 참여업체와 장터 참여날짜 선정 및 안내,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직거래 장터 참여자를 위한 텐트, 플래카드, 포장재, 스티커, 단체조기 등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꽃잔디 개화시기인 20여일 동안의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준비를 마쳤다.

행사 참여업체는 총 14개 업체이며, 이중 매일 6개 업체가 주말과 주중 각각 돌아가며 직거래 장터에 나선다. 판매 품목으로는 홍삼제품, 수삼, 열매마, 오미자청, 장류, 표고버섯, 꽃송이버섯, 사과, 차류, 찹쌀소주, 두릅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현희 농특산유통 과장은 "꽃잔디로 눈도 즐겁고 진안군 농특산물도 구매해 마음도 손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꽃잔디 동산에 꼭 방문해 남은 봄을 만끽하시기 바란다"며 "우리가 농가들이 현장에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최훈식 장수군수, 임산물 농가 찾아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1일, 13일 양일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가를 찾아 재배현황을 둘러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은 전문임업인들에게 연차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임산물 생산기반을 규모화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눈개승마(삼나무) 2.5ha 재배에 성공한 임가와 2022년 두릅 4.5ha 식재사업에 완료한 임가, 2023년 목단재배를 준비 중인 임가까지 다양한 임산물 소득작물 재배를 위한 공모사업 대상자 발굴(사업비 12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선정 50억원 확보

진안군이 여름철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예산 5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14일 군에 따르면 여름철 상습 침수지역인 동향면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도 실시설계 대상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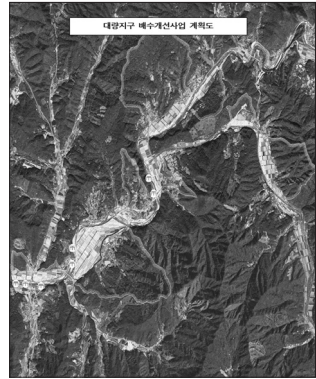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2년 기본조사, 2023년 실시설계, 2024년 본격 시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전액이 국가예산이다.

배수개선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로부터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전라북도, 농어촌공사와 함께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진안군은 대량지구의에도 지난 2022년 국가예산 54억원을 확보해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에 들어가 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2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대량지구와 연장지구의 여름철 상습 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내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계획도

년에도 성수면 상기, 구신 배수개선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로 동향면 대량지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적극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예산 체질개선 대책 마련해야'

###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은 무주군의 재정전망이 어둡다고 진단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 사용과 행사비 축소 등으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안에는 전체 사업비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50%만 계상한 사업이 많다. 결국 주민들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7%에서 1.5%로 하향됐고 국내

에서는 노인기초연금 하향과 긴축재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의존하고 있는 무주군이 국가정책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 예산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황인동 의원은 그 대책으로 민간 이전예산 조정과 국가공모사업 확보과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재정악화요인을 고민해보니 민간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민간 이전예산이 너무 많다. 행사를 위한 행사와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편성 방향에서는 "정부와 무주군이 성과중심의 재정운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앞서 지원목적확인을 해야 하고 공모사업은 군 재정을 50% 이상 투입해야 해 이 또한 부담이 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인동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사전절차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무주군이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를 반드시 지켜 안전을 제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전주 롯데백화점서 장수한우 100두 한정 특별할인행사

장수한우지방공사가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간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100두 한정 장수한우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한우 도매가격을 직접 체감하고, 소값 하락,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대형 유통기업과 온·오프 유통을 통해 수도권과 호남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수한우 브랜드 인지도와 지명도 향상을 위해 한우 특별할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성수영 사장은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품질 좋은 장수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한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금연 UCC 공모

무주군이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2023년 '흡연예방 및 금연 UCC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흡연예방 및 금연, 금연 환경 조성을 주제로 동영상 형식의 응모작을 접수에 들어갔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무주군 보건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무주교육지원청과 무주청소년수련관,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조한다.

응모작은 영상전문가와 관련기관에서 활동하는 내·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두 8팀을 선발하며,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을 각각 선정하고 무주군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